

【논문】

1919-1920년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독판(督辦) 이상룡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식과 공조

정현탁*

┃ 차례 ┃

- I. 머리말
- II. 임시정부 수립 전후 서간도 무장단체와 이상룡의 인식
- III. 1920년 혈전 선포에 따른 공조 시도와 이상룡의 인식
- IV. 간도침략 전후 서로군정서의 대응과 이상룡의 인식
- V. 맺음말

국문초록

1919년 11월 17일 군정부(軍政府)가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로 개칭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산하로 편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임시정부와 타협하여 체결한 「서간도 타협안」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타협의 주체가 되는 군정부와 개편된 주체인 서로군정서의 시선에서 임시정부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서간도 지역 독립운동세력 중 서로군정서(군정부)의 임시정부 인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서로군정서의 인식은 군정부 총재(總裁)와 서로군정서 독판(督辦)을 역임한 이상룡(李相龍)을 통해서 고찰해 보려고 한다. 서로군정서 독판을 맡았던 이상룡이 만주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볼 때, 그가 가졌던 임시정부 인식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룡의 임시정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시기는 1919년부터 1920년까지로 설정하였다. 해당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 국립경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이상룡이 임시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식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룡의 임시정부 인식은 우려-긍정-중립으로 변화하였다. 1919년 4월 11일부터 1920년 12월까지 이상룡의 기저에 놓여 있는 핵심은 '분치(分治)'였다. 분치는 이상룡이 임시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의 기준점이 되었고, 상황에 대처하는 임시정부의 대응 방식은 이상룡의 기준점에 영향을 주어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켰다.

주제어: 군정부, 서로군정서, 이상룡,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식, 공조

I. 머리말

본 연구는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독판(督辦) 이상룡(李相龍)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임시정부가 군사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만독립운동세력과 공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였다. 이들 중 이상룡이 총재(總裁)로 있던 군정부(軍政府)가 임시정부와 가장 먼저 타협하였다. 그 결과 군정부는 임시정부 산하로 편재되어 서로군정서가 되었다. 이는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를 비롯한 다른 무장단체들이 임시정부 산하로 편입되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타협의 주체 중 하나인 군정부가 임시정부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군정부가 개편된 서로군정서의 시선에서 임시정부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대개의 연구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주변 세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군정서(軍政府)의 시선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서로군정서의 임시정부 인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서로군정서의 임시정부 인식은 독판으로 활동한 이상룡을 통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상룡이 만주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 임시정부 초대 내무총장 안창호

(安昌浩)와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이상룡이 가진 임시정부 인식과 그 영향이 중요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 시기는 1919년부터 1920년까지로 설정하고, 이를 임시정부 수립 전후, 1920년 혈전 선포, 간도침략 전후 세 시기로 나누어 이상룡의 인식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임시정부와 서로군정서의 관계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 김병기의 연구가 확인된다.¹⁾ 김병기는 대중교를 매개로 임시정부와 만주 지역 무장투쟁단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군정부가 임시정부와 타협하고 서로군정서로 개편되었다는 점에서 군정부를 실질적인 주체로 보았다. 이는 이상룡을 통해서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서로군정서가 임시정부와의 노선 차이로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대중교를 바탕으로 둔 군정부와 임시정부 인사들 사이의 교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노선 갈등으로만 두 세력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임시정부 중심의 시각을 떠는 까닭은 연구 시기상 대개의 자료가 임시정부에서 생산한 것들이라는 점과 임시정부가 지닌 위상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럼에도 주목되는 몇 가지 연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김호진과 신주백의 연구가 있다.²⁾

김호진은 3.1운동을 기점으로 서간도 지역의 여러 단체 통합 배경을 보고 대한통의부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독립운동세력의 통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또한 해당 연구는 서간도 지역 독립운동 단체와 임시정부의 관계도 분석하고 있는데, 임시정부의 군사정책에 대해서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가 임시정부와 군사적으

1) 김병기, 2019,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만주 무장독립운동」, 『국학연구』 23, 국학연구소; 이외에도 윤대원, 2006, 『상해시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희곤, 2008, 『대한민국 임시정부 I: 상해시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있다.

2) 김호진, 2023, 「3.1운동 이후 서간도지역 독립운동단체의 동향과 대한통의부의 결성」,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주백, 2021, 「1920년의 임시정부 독립전쟁론과 북간도 지역 독립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이외에도 강윤정, 2018, 「신흥무관학교와 안동인」, 『한국학논총』 4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있다.

로 연대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군사적 연대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임시정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신주백은 임시정부와 만주 지역 독립운동세력 간 관계를 분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독립운동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가 작용한다는 시각을 포함하여 ‘운동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해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특히 서간도 세력은 북간도 세력과 달리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가 두드러진다. 다만, 연구 대상이 서간도 지역이 아닌 북간도 지역이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를 시도하기 위해 활용할 주요 자료는 『石洲遺稿』이다.³⁾ 이 자료는 이상룡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써, 그가 쓴 편지와 시를 중심으로 인식 분석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과 『島山安昌浩全集』, 그리고 일제측 자료인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 및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등으로 교차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다. 따라서 본 글은 이상룡의 핵심적인 생각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인식하였고, 그 인식의 변화 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연구가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과 이상룡, 그리고 임시정부 연구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임시정부 수립 전후 서간도 무장단체와 이상룡의 인식

1. 수립 이전 서간도 무장단체의 분열과 이상룡의 인식

3.1운동을 기점으로 서간도 지역에 여러 단체가 조직되었다. 이 지역에 제단체가 결성된 이유는 3.1운동으로 독립운동에 대한 열기가 고조된 데에 있었다. 3.1운동 이후 서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은 통합이었는데, 이는 국제 정세를

3)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석주유고』는 안동독립운동기념관에서 펴낸 『(국역) 석주유고』이다.

의식한 결과였다. 같은 해 이상룡이 서천 조정규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파리의 강화회의에서 자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자결주의가 특히 허락되었습니다. 이에 **만세소리가 온 나라에 진동하여 세계의 이목이 그 때문에 일신**되었고, 2천만 동포가 이미 싸늘한 시체와 다름 없던 마음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게 되었으며, 이어 베를린 연맹회의 기일이 박두해 있는데 **우리 대한 문제가 현하 열강의 목인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 우리 민족이 이때에 우리의 기력을 맹렬히** 가한다면 거의 일제의 굴레를 벗고 하늘의 해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중략)… 진실로 **한바탕 혈전이 아니고서는 반드시 쉽게 물리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만주에서는 **이 시기의 의미를 간파하고 일찌감치 교육에 힘을 쏟아 8-9년 사이에 이룩한 성과가 적지 않습니다. 올 봄에는 또 군무기관(군정부: 인용자 주)을 조직(밑줄 및 강조: 인용자)하여** 편제가 이미 이루어지고 기초가 대략 정해졌으니 …

- 「與趙西川貞奎」, 『石洲遺稿』⁴⁾

이상룡이 편지에서 언급하였듯이 3.1운동으로 세계의 이목을 받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열기가 고조되었고, 그 기력을 펼치고자 여러 단체가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된 단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단으로 혈전을 선택하였다. 이는 외교를 통해 한국의 독립 문제를 다룰 수 없음을 간파하고, 무장투쟁만이 독립 쟁취의 최종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무장투쟁의 역량을 결집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무장투쟁 역량의 결집 방법은 통합이었다. 이 통합에 대한 이상룡의 생각은 분담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상룡은 여러 단체의 일괄적인 흡수통일의 형태를 지양한 것 같다.⁵⁾ 후술하겠지만, “한 그물 안의 그물눈”이나 “(의심하는)병의 근원이 오

4)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與趙西川貞奎」, 『석주유고』 상, 경인문화사, 375쪽.

5) 본 글에서는 단체의 통일보다는 세력의 통합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상룡은 공통의 대전제 아래 각자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역할을 다하여 실력을 쌓은 뒤에 대단위 통합하는 것을 청사진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규명하는 통합은 ‘단체’에 무게가

로지 자신의 사견을 다 극복하지 못했거나 습관을 다 고치지 못한” 것에 있다는 이상룡의 인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⁶⁾ 서간도 지역에서 부민단(扶民團)·자신계(自新契)·교육회(教育會)가 일찍이 단체 통합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가 3.1운동을 기점으로 단합하여⁷⁾ 3월 13일에 한족회(韓族會)가 생겨난 것도 같은 이유로 본 셈이다.

한족회가 조직되고 무장투쟁을 전담할 군무기관인 군정부를 설립하였다.⁸⁾ 한족회 조직 시점은 군정부 설립 시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다. 지금까지 군정부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대개 4월 초로 보고 있다.⁹⁾ 그런데 군정부의 설립 시기를 3월로 보는 이성우의 연구가 주목된다.¹⁰⁾ 이성우는 1919년 3월에 한족회와 군정부가 동시에 조직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고광연보(古狂年譜)』를 근거로 이세영(李世永)이 임시군사령부군사령관과 군정부규칙제정위를 맡고 있었다는 점과 군정부의 길림(吉林) 이전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¹¹⁾

이세영이 군정부의 규칙을 제정하는 위원이었다는 것은 군정부가 설립되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군정부규칙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군정부의 조직이나 역할에 대한 법규를 제정한 것이라면 조직 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앞서 제시한 편지에서도 이상룡은 “올 봄에는 또 군무기관을 조직하여 편제가 이미 이루어지고”라는 내용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

실려 있어 흡수통일 형태의 어조를 띠고 있어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 6)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答許性山巒 甲寅」, 『석주유고』 상, 320쪽.
- 7) 한족회가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서중석은 3월 12일 서간도 지역의 3.1운동 이후 통합을 합의한 시점이 3월 13일이고, 실질적으로 한족회가 발족된 시점은 4월 초로 보고 있다(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159쪽). 게다가 『독립신문』의 기사에서도 명확한 날짜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1:독립신문』, 『西間島의 韓人』 1919년 11월 1일).
- 8) 군정부가 한족회 산하 조직인지 한족회와 별개로 활동한 이원적인 형태의 조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9) 김정미, 2001, 「石洲 李相龍의 獨立運動과 思想」,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143쪽;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59-160쪽.
- 10) 이성우, 2022, 「고광 이세영의 생애와 독립운동」, 『역사와담론』 103, 호서사학회.
- 11) 이성우, 2022, 「고광 이세영의 생애와 독립운동」, 『역사와담론』 103, 110쪽.

다.¹²⁾

그리고 군정부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석주유고』를 살펴보면, 한족회·군정부와 길림군정사(吉林軍政司)에서는 화전(樺甸)에 거주하고 있던 이상룡에게 각각 사람을 3월에 보낸 것이 확인된다.¹³⁾ 한족회·군정부에서는 혈전의 준비를 논의한 뒤 이상룡에게 품의하였고, 길림군정사에서는 이상룡을 초빙하고자 하였다. 무장투쟁을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이상룡은 길림군정사의 초빙을 거절하고 군정부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군정부는 길림군정사와 비슷한 시기인 3월 중순에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따라서 군정부의 설립 시점은 한족회와 같이 3월 중순이고, 본격적인 활동 시점을 4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⁵⁾

이상룡은 군정부 총재로 추대되고 난 뒤에 길림군정사 및 한교공회(韓僑公會)와의 세력 통합을 시도하였다.¹⁶⁾ 이러한 움직임은 서간도 지역에 있는 무장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력을 통합하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군정부 이전 문제는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을 조직했던 조맹선(趙孟善)이 제기하였다.¹⁷⁾ 이는 대한독립단이 한족회와 비슷한 시점에 조직되어 한족회와 표면적인 통합을 이룬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¹⁸⁾ 이전 문제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통합이 어려워졌다.

두 단체 간 이견의 원인은 무장투쟁 전개 방식과 임시정부에 대한 입장이었다. 무장투쟁 전개방식에 있어서 대한독립단은 급진적·즉각적인 전투를 추구했고 한

12)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與趙西川貞奎」, 『석주유고』 상, 375쪽.

13)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遺事」, 『석주유고』 하, 605쪽.

14) 길림군정사가 3월 중순에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집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1:독립신문』, 「吉林에서」 1919년 10월 7일).

15) 일제가 군정부를 파악하여 보고한 시점이 4월 22일이라는 점도 군정부의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시점을 4월로 볼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1919년 4월 22일, 「騷密第六七二號 獨立運動ニ關スル件(國外 第四十四報)」).

16)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遺事」, 『석주유고』 하, 605쪽.

17) 이성우, 2022, 「고광 이세영의 생애와 독립운동」, 『역사와담론』 103, 111쪽.

18) 송상도, 1971, 『騎驢隨筆』, 국사편찬위원회, 276쪽.

족회는 점진적·장기적인 전투를 견지했다.¹⁹⁾ 한족회 내부에서도 무장투쟁 전개 방식에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주된 흐름은 점진적인 방식이었다. 이상룡이 “급진적인 일파가 있어서 날을 지정해 놓고 전진하려 하였다. 공(이상룡: 인용자 주)은 실력이 아직 완전치 않다 하여 멈추게 하였다”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²⁰⁾

이러한 무장투쟁 전개 방식의 차이는 두 단체의 세력 통합에 걸림돌이었다. 대한독립단은 한족회가 우유부단하기에 함께 할 수 없다며 통합을 거부하였다.²¹⁾ 이는 타자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상룡이 생각했던 통합의 어려움과도 일치한다.

2. 수립 이후 대한독립단·한족회의 상반된 입장과 이상룡의 인식

임시정부에 관한 입장은 대한독립단과 한족회가 상반되었다. 일제측 자료를 보면 1919년 6월부터 10월까지 한족회와 대한독립단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대한독립단은 재정난으로 인해 “임시정부의 호위(虎威)를 빌려 자금 모집”을 하고자 임시정부를 지지하였다.²²⁾ 이는 대한독립단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정문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한 것이다. 결국 대한독립단은 임시정부의 지휘를 받고자 대표를 파견함으로써,²³⁾ 한족회가 아닌 임시정부를 선택하였다.

한족회와 대한독립단 간 경쟁이 과열되자 임시정부는 특사를 파견하였다. 특사로 온 ‘김 아무개’는 두 단체 사이에서 자금 조달과 알력을 조정하였는데,²⁴⁾ 그

19)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70쪽; 金正明 編, 1999, 「大正八年五月二十一日 駭密第二七六四號 獨立運動に關する件(國外日報 第七十三報)」, 『朝鮮獨立運動II』, 原書房, 831쪽.

20)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行狀」, 『석주유고』 하, 158쪽; 이외에 편지나 시에서 자주 드러나고 있다.

21) 김정명 편, 1999, 「大正八年五月二十一日 駭密第二七六四號 獨立運動に關する件(國外日報 第七十三報)」, 『조선독립운동II』, 831쪽.

22) 김정명 편, 1999, 「大正九年四月二十二日 朝特報第二三號 鴨綠江對岸方面に於ける獨立運動の概要」, 『조선독립운동II』, 924쪽.

2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1: 독립신문』, 「西間島의 現況」 1919년 9월 29일; 그런데 해당 신문의 기사 날짜는 오키로 보인다. 나머지 면수는 모두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면만 9월 29일이다.

24) 김호진은 7월 상순 임시정부에서 서간도로 파견한 특사를 김승만으로 파악하고 있다(김호진, 2022, 「한족회와 대한독립단의 성립과 연대 양상」, 『한국근현대사연구』 102, 한국근현대사학회,

결과 7월 말부터 한족회는 대한독립단과 동일한 보조를 맞추었다.²⁵⁾ 이는 임시정부의 조율 방안을 수용하면서 상호연대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임시정부 인식과 관련하여 채근식(蔡根植)의 『무장독립운동비사(武裝獨立運動秘史)』가 주목된다. 임시정부에 대한 만주 지역 인사들의 인식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상해에서 임시의정원이 조직되고 다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李承晩)이 피선되었으니 만주에다 망명정부를 수립할 계획은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²⁶⁾ 물론 『무장독립운동비사』에 서술된 것처럼 이상룡이 망명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망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상룡을 포함한 만주 지역으로 망명한 인사들의 임시정부 인식이 이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후술하겠지만 성산(性山) 허혁(許赫)이 분열로 인식할 만큼 만주 지역에는 이미 여러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고, 중국에는 그 단체들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기에 임시정부의 수립은 갑작스럽다고 받아들인 것 같다. 이상룡도 임시정부 수립 시기의 빠름을 공감하였다. 1921년 이상룡이 박용만을 비롯한 북경의 인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상룡의 임시정부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원래 상해의 기관 건설이 너무 일렸으니, 비록 ‘개량을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지라, 쓸모없는 허기에 정신과 힘을 소모하기보다는 차라리 실제적인 일에 전력하여 큰일의 기초를 완전하게 구축하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

-「與朴容萬 辛酉(1921년)」, 『石洲遺稿』²⁷⁾

… 여러분께서 이미 당습(黨習)을 바꾸어 없앴으로써 진심을 열고 공정함을 펴는

91쪽).

25) 김정명 편, 1999, 「大正九年四月二十二日 朝特報第二三號 鴨綠江對岸方面に於ける獨立運動の概要」, 『조선독립운동II』, 924쪽.

26) 채근식, 1985,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50쪽.

27)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與朴容萬 辛酉」, 『석주유고』 상, 413쪽.

것으로써 주의를 삼으셨다고 하면서 기어코 순전히 한 지방의 인물만 써서 아주 큰 기관(임시정부)을 조직하려 한다니, 이것은 말과 실상이 서로 모순에 가깝지 않습니까? ...

-「答北京諸友 辛酉(1921년)」, 『石洲遺稿』²⁸⁾

이상룡은 임시정부가 특정 지방 출신의 인사들로 성급하게 조직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갑인년(1914년)에 이상룡이 허혁에게 대동단합이라는 명분이 오히려 분열의 원인이라고 언급했던 생각과 일치한다.²⁹⁾ 실제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약 1개월 만에 수립되었고, 그 구성원도 대부분 기호파와 서북파 출신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³⁰⁾

전술한 바와 같이 이상룡이 허혁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상룡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단기간에 나라를 되찾을 수 없어서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국적 단위의 정부 수립이 아니었다.

임시정부 수립 시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던 이상룡의 인식 전환에는 그가 만주에서 활동하며 가졌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1914년 그가 허혁에게 보낸 편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제가 보건대 이러한 징조는 아직 없고, 혹 소소한 결합으로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계의 여러 곳 소학당이나 자치제의 공리회·공제회, 실업계의 자신계·농림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한 그물 안의 그물눈에 불과하여 목적이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갑자기 분열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요? ... (중략) ... 이렇게 하여 오래 오래 지속이 되면 같은 목적으로 같은 격정을 하는 처지인데 어찌 분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피차 의심을 품

28)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答北京諸友 辛酉」, 『석주유고』 상, 435쪽.

29)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答許性山巖 甲寅」, 『석주유고』 상, 320쪽.

30) 김동삼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지만, 서간도로 돌아온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별도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한갓 단체의 겉모양만 번듯하게 꾸미거나 한 마디도 합치하지 않으면서도 …(중략)… 이른바 대동단합의 방침이라는 것이 딱 분열을 재촉하는 장본이 되기에 죽할 뿐이니 …

-「答許性山巒 甲寅(1914년)」, 『石洲遺稿』³¹⁾

이상룡은 허혁과 달리 ‘분치(分治)’를 ‘분열’로 간주하지 않았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각자가 실력을 쌓는 것은 하나의 그물 안에 있는 그물눈과 같다고 여겼다. 즉 통합의 기초는 분치를 전제로 한 협치(協治)였다. 그래서 이상룡은 만주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세력들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력을 쌓아 세력을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상룡이 끊임없이 군정부, 길림군정사, 대한독립단, 한교공회와 같은 단체들과 세력을 통합하려던 이유도 무장투쟁이라는 아래에 각자 역량을 축적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19년 7월 무렵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도산 안창호의 편지도 임시정부에 대한 이상룡의 인식 전환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³²⁾ 해당 편지는 7월에 특사로 파견된 김 아무개 즉, 김승만이 전한 것이 아닐까 한다.

… 바라건대 때로 지침을 내려 주시어 저희들이 따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그만한 영광과 다행이 없겠습니다. 각항의 정무의 진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외교와 내정, 재무와 군사 4가지 대단으로 주축을 삼았는데, 지금부터 차례로 여기에 대해 자세히 밝혀 올리니 청컨대 고치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네 번째는 군사 문제로, 이것은 다시 우리 선생께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이곳에도 비록 추상적인 어떤 계획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기와 지리 관계로 인해 아직 하지 못한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 선생께서 이런 사정을 헤아리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정밀하고 깊은 계획이 있으실 것이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곳의

31)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答許性山巒 甲寅」, 『석주유고』 상, 320쪽.

32) “한 달 남짓이나 주저하다가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지난 달 28일 우선 취임식(내무총장 및 국무총리 대리: 인용자 주)을 가졌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시기가 7월쯤임을 알 수 있다(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附原書」, 『석주유고』 상, 421쪽).

대체적인 상황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선생께서 그쪽의 최근 상황을 상세히 알려 주 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오며, 이만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附原書」, 『石洲遺稿』³³⁾

안창호가 이상룡에게 4가지 정무 방향을 언급하면서 군사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 군사 분야는 시·공간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안창호는 이상룡에게 교시 요청과 서간도 지역의 정황을 같이 확인하고자 하였다.³⁴⁾ 이는 안창호가 군사활동 중심지로 만주 지역을 염두하고 있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해당 지역의 역량과 실력을 가늠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시정부가 이미 수립된 상태에서 이상룡은 실력을 갖추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이상룡은 안창호가 군사 정무에 대한 조언과 서간도 지역의 상황을 묻는 것을 기회로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11월 무렵 임시정부에서는 대정방침안이 논의되고 있었고,³⁵⁾ 한족회에서는 임시정부로 사람을 파견하여 타협을 논의하였다.³⁶⁾ 11월 7일부터 한족회와 임시정부는 협상을 진행하였고,³⁷⁾ 특별국무회의를 통해 임시정부는 「서간도 타협안(西間島 妥協案)」을 체결하였다.³⁸⁾

十一月 十七日 特別國務會議에서는 西間島 妥協案이 提出되야 西間島 軍事機關(軍政府) 自治機關(韓族會)은 臨時政府 統治下에 歸함

33)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附原書」, 『석주유고』 상, 420-422쪽.

34)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附原書」, 『석주유고』 상, 422쪽.

35) 이동휘가 이승만에게 11월 29일자로 보낸 편지에 “요사이 大政方針案으로 閣會를 비롯하여 討議 中인바”를 통해서 11월에 대정방침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1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42: 서한집 I』, 19쪽).

36) 「행장」에서는 여운형이 파견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의문이 제기된다. 『여운형 평전』, 『조선민족운동연감』이나 『무장독립운동비사』 등의 다른 자료에서 여운형이 왔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중 『무장독립운동비사』에 의거하면 윤기섭이 상해로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파견 시기가 4월로 기록되어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한족회에서 임시정부로 인원을 파견한 것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37) 「서간도 타협안」과 관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에는 7일과 17일이 확인된다. 이는 7일에 한족회와 임시정부가 협상에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해당 안건이 타결된 시점이 17일로 여겨진다.

3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65쪽.

「서간도 타협안」 통과는 만주 지역 독립운동단체들에게 임시정부 중심의 통합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무총리 이동휘는 같은 달 27일에 간도에 있는 독립 운동 간부들에게 편지를 보내 임시정부 지지를 호소하였다.³⁹⁾ 그 결과 1920년 1월에 북간도 세력이 임시정부를 지지하게 되었다.⁴⁰⁾ 이처럼 군정부의 임시정부 귀속은 촉매제 역할이었다. 이 지점은 표면적으로 군정부가 서로군정서로 개칭하여 임시정부 산하로 편입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전쟁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두고서 서로군정서가 '상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⁴¹⁾

이러한 군정부의 행보는 이상룡의 일관된 생각을 보여준다. 이상룡은 임시정부의 수립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였지만, 이미 정부가 수립된 상태에서 혼선을 일으킬 필요 없이 단합을 통한 실력 축적을 강조하였다.⁴²⁾ 또한 혼란의 원인은 권세 있는 자리를 마음에 두거나 사건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그의 인식이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 전환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물과 그물논처럼 상대성을 유지하려던 이상룡의 생각에는 분담을 기초로 한 협치가 핵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1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42: 서한집 I』, 17-18쪽.

4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2: 조선민족운동연감』, 63쪽.

41)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듯이 신주백이 제시한 '상대적 독자성' 용어는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단서가 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해당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적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신주백의 연구에서는 북로군정서와 서로군정서를 비교하여 상대적인 측면에서 제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에서는 '상대성'의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고, 부분 사이의 의존관계가 전체를 지탱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특히 서로군정서가 일반적으로 종속된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고 임시정부와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行狀」, 『석주유고』 하, 158쪽.

III. 1920년 혈전 선포에 따른 공조 시도와 이상룡의 인식

1. 임시정부 독립전쟁 선포 전후 이상룡의 재정 강조와 대표자 파견

1920년대 임시정부의 정무 방향 변화에는 국제 정세가 영향을 끼쳤다. 1920년의 국제 정세는 파리강화회의의 결과에 따라 국제연맹 탄생과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된 상태였고, 이 상황에서 무장투쟁을 고수한 세력은 외교를 통해서 더 이상 한국의 독립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다. 그 결과 1920년에 들어서 임시정부는 군사 활동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안창호가 『독립신문(獨立新聞)』 신년호 축사 제목으로 '독립전쟁의 해'를 언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⁴³⁾

축사에서 안창호는 독립전쟁에 대한 의지와 독립전쟁 준비를 위한 임시정부의 6대사(六大事)를 결정했음을 언급하였다. “獨立戰爭의時機는 今年인가하오 獨立戰爭의 年이 이른 것을 기뻐하오”와 “元年 末에 大政方針의 具體案이 國務會議를 通過 … 軍事·外交·教育·司法·財政·統一의 六大項目”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⁴⁴⁾ 이처럼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으로 전환한 것은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과 그동안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개한 활동의 실효성이 없었던 데에 따른 최후의 결심이기도 하였다. “元年 三月一日 以來로 我國民은 平和의 手段으로 可能한 거의 모든 運動을 實行하였으나 敵은 漸漸 더 頑暴하여 갈 뿐이니 이제 取할 바는 오직 豫定的 最後 行動인 戰爭밖에 없소.”라는⁴⁵⁾ 안창호의 말에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임시정부의 정무 방향 변화는 재만독립군(在滿獨立軍)에게 영향을 끼

4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1: 독립신문』, 「戰爭의 年」 1920년 1월 17일.

4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1: 독립신문』, 「戰爭의 年」 1920년 1월 17일.

4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1: 독립신문』, 「戰爭의 年」 1920년 1월 17일.

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상룡은 이미 8, 9년 전부터 혈전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군사인재를 양성해 왔다. 장기간에 걸쳐 군사인재를 양성하고 군대를 조직하여 군사활동을 전개하려는 목표였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정이었다.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장투쟁 전개는 불가능했기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제가 급선무였다.

이상룡은 1919년 7월 무렵 안창호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한 답장을 다음 해에 보냈다.

… 제 생각으로는 **이 일(독립)은 외교로 시작하여 혈전으로 마친다**는 것은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략)… 더구나 이곳의 상황을 물으시니, 응송하신 질문에 이마에 땀이 날 지경입니다. **알록강을 건너온 지 8-9년 동안 줄곧 애써온 일은 결사자치와 상무교육 두 가지에 있습니다.** …(중략)… **지난 봄 이래로 시기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비로소 군무기관을 조직하여 2개의 여단 제도를 편성하였는데,** …(중략)… **현재 새로운 학교에서 양성한 우등 자격을 가진 사람이 5-6백 명이며, 2·3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7-8백 명으로, 새로 모집되어 아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수인데** …(중략)… 무기에 대해 말하면 이곳이 북으로는 러시아 땅과 접해있고 서쪽은 중국과 통하는 곳이라, 참으로 상당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수입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탄스러운 것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략)… 삼가 합하께서는 지금부터 앞에서 정하신 **4가지 대단 중에서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제4항을 1항으로 하고 제3항을 2항으로 삼아서 이 일에 전력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

- 「答安島山昌浩 庚申(1920년)」, 『石洲遺稿』⁴⁶

답서에는 4가지 대단 중 제4항(군사)과 제3항(재정)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룡은 만주로 망명한 이후 끊임없이 무장투쟁 역량 축적에 집중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신흥무관학교의 급증과 육성된 군사인재의 수가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의 불안정이었다. 이는 상위기관인 임시정부

46)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答安島山昌浩」, 『석주유고』 상, 419쪽.

에서 재정을 뒷받침해 준다면 원활하게 군사 활동을 준비하고 전개할 수 있다는 이상룡의 자신감이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의 요구였다.

그리고 1920년 2월 10일 무렵 유하현(柳河縣) 남산(藍山)에서 100여 명의 인사가 모여 4일간 재만임시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⁴⁷⁾ 그 대회에 모인 인사들이 결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⁴⁸⁾

1. 가까운 시일 내 국내로 습격해 혈전을 전개할 것
2. 군비는 국민대회에서 부담하지만, 또한 상해정부의 원조를 구할 것
3. 작전계획은 국민대회 간부에게서 책정할 것
4. 무기는 국민대회에서 준비하지만, 주로 현재 권총을 사용할 것
5. 독립선전기관을 확충해서 한층 내외 선전에 노력할 것
6. 이상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순조롭게 하기 위해 대표자를 상해로 보내 협의할 것

6가지 결의사항은 최종 목표인 무장투쟁(1항)을 실현하기 위한 세목들이었다. 작전계획(3항), 무기 구비(4항), 선전 활동(5항) 등의 계획이 그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군비 문제는 한족회에서 온전하게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상 위기관인 임시정부로부터 순조롭게 재정 지원을 받아(2항) 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자 대표자를 파견(6항)하였다.

2월 13일 국민대회에서 임시정부로 파견할 대표자들이 선출되었다. 윤기섭(尹琦燮, 고산자 신흥학교 敎頭)과 이진산(李震山, 한족회의 舊制의 경우 査判正이었던 자)이었다.⁴⁹⁾

47) 해당 대회의 개최 시기를 『독립신문』에서는 2월 9일에 개최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일제는 2월 11일로 파악하고 있다. 시기상의 차이는 있으나, 4일간 지속된 대회라는 점과 시간도 대표로 선출된 인물이 같다는 점에서 같은 대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1: 독립신문』, 「在滿臨時國民大會」 1920년 3월 25일;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5』 1920년 3월 16일, 「三月上旬ニ於ケル韓族會及獨立團之狀況」).

48)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5』 1920년 3월 16일, 「三月上旬ニ於ケル韓族會及獨立團之狀況」.

4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1: 독립신문』, 「在滿臨時國民大會」 1920년 3월 25일;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5』 1920년 3월 16일, 「三月上旬ニ於ケル韓族會及獨立團之狀況」.

이는 「서간도 타협안」에서 군정기관과 자치기관을 인정한 내용에 따라 각각 서로군정서와 한족회 대표를 뽑았다. 특히 윤기섭은 군정부가 임시정부 산하로 편재되기 전에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와 교섭하였던 행보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다.⁵⁰⁾

서간도 대표로 선출된 두 사람이 상해에 도착한 시점은 1920년 2월 말경으로 보인다.⁵¹⁾ 해가 바뀌고 임시의정원에서 열린 첫 회의인 제7회 회의는 23일에 개최되었다.⁵²⁾ 의사일정에 따르면 24일에는 신도의원(新到議員) 자격심사위원 선정 위원회 조직에 관한 결의, 26일에는 신도의원 자격위원의 심사보고를 계획하였다.⁵³⁾ 그러나 예정된 의사일정과 달리 자격심사가 진행된 시점은 3월 4일이었다.⁵⁴⁾ 이는 24일에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일정이 하루씩 밀린 탓도 있었고, 28일부터는 의원 수 미만으로 유회(流會)되면서 4일이 지연되었다.⁵⁵⁾

3월 4일 윤기섭과 이진산의 자격심사가 진행되었고, 같은 날 두 사람은 중령(中領)의원 자격을 획득하였다.⁵⁶⁾ 윤기섭과 이진산이 임시의정원 내 중령의원으로서 선출됨으로써, 서로군정서와 한족회의 입장을 임시정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⁵⁷⁾

50) 채근식, 1985, 『무장독립운동비사』, 50쪽.

5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1: 독립신문』, 「尹琦燮 先生이 西間島議員으로 議政院에」 1920년 3월 6일; 윤대원, 2006,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160쪽; 김광재, 2009,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혁명이 윤기섭』, 역사공간, 63쪽.

5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임시의정원회의 제7회(1920.2.-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 I』, 53쪽;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2: 조선민족운동연감』, 66쪽;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1: 독립신문』 1920년 2월 26일, 「임시의정원 기사(23일)」.

5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임시의정원회의 제7회(1920.2.-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 I』, 54쪽.

5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임시의정원회의 제7회(1920.2.-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 I』, 61쪽;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1: 독립신문』, 「임시의정원기사(4일)」 1920년 3월 6일.

5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임시의정원회의 제7회(1920.2.-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 I』, 55-59쪽.

5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 I』, 61쪽.

57) 『임시헌장』 제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1차 개정된 『임시헌법(臨時憲法)』 전문에는 “元年 四月 十一日에 發布한 十

2. 위임통치청원 이후 혼란과 윤기섭·이진산의 활동

윤기섭과 이진산이 중령의원이 된 시점에 임시정부는 안팎으로 곤란한 상황이 었다. 그 원인은 임시대통령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이었다.⁵⁸⁾ 위임통치청원은 1919년 3월경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로도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독립운동계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임시정부 내부에서는 2월부터 차장들이 임시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내면서 임시정부를 개혁하고자 했고,⁵⁹⁾ 임시정부 외부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반대가 임시정부에 대한 반대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임시정부는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윤기섭 외 4인은 3월 30일 임시의정원에서 「軍事에 關한 建議案」을 상정하였다.⁶⁰⁾ 이는 이상룡을 비롯한 서로군정서 인사들이 독립 문제를 외교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취한 위임통치청원에 대한 강한 반발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해당 안건은 ‘군사기관의 만주 이전’과 ‘금년 내 혈전 개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들이었다. 또한, 윤기섭이 “우리가 悲慘한 戰鬪를 한 뒤에야 世界가 움직이겠고 우리가 悲慘한 戰鬪를 當한 後에야 國民의 團合이 完成하리라”라고 언급한 지점에서 즉각적인 혈전을 개시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⁶¹⁾ 이러한 생각은 이상룡이 안창호에게 답장했던 내용처럼 무장투쟁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자신감이

個條의 臨時憲章을 基本삼아 本 臨時憲法을 制定하야”라고 명시함으로써 그 권한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었다(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6쪽).

- 58) 임시정부가 혼란을 겪게 된 이유는 위임통치청원문제 말고도 재정독점문제와 내부불화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것이다(이혜린, 2015,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불신임운동의 주체와 성격」, 『인문과학』 57,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40쪽 참고).
- 59) 재무차장 윤현진은 안창호를 찾아가 재무총장이 이동휘나 안창호를 추대하고 청년내각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을 전달했다(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0, 『도산안창호전집4: 일기』 1920년 2월 5일). 이후로도 윤현진은 여러 차례 안창호를 찾아가 임시정부 개혁을 건의했다(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0, 『도산안창호전집4: 일기』 1920년 2월 22일·3월 12일·4월 21일); 이혜린, 2015,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불신임운동의 주체와 성격」, 141-142쪽.
- 60) 해당 안건을 제출한 인원은 윤기섭·왕삼덕·이유필·이진산·김홍서이다(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 I』, 80-81쪽);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1: 독립신문』, 「軍事에 關한 建議案」 1920년 4월 3일.
- 6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 I』, 81쪽.

기저에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⁶²⁾

- (1) 本年 五月上旬 以內로 適當한 地點에 軍事會議를 召集하여 軍事計劃을 切實히 確立하여 軍務進行의 方針을 周到히 規定할 것
- (2) 軍務部の 陸軍 軍事, 軍需 軍法의 四局과 其他 各도 軍事機關을 滿洲(中國東三省과 俄領沿海 黑龍 兩州를 包含함)에 移置할 것
- (3) 今年內에 少하여도 滿洲에서 步兵 十個乃至 二十個聯隊를 編成 訓練할 것
- (4) 今年內에 少하여도 士官과 準士官 若 一千人을 養成할 것
- (5) 今年內에 戰鬪를 開始하되 少하여도 步兵 十個隊를 出動하도록 할 것

이 안건은 기권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⁶³⁾ 임시의정원은 통과된 안건을 임시정부에 전달하고, 1주일 이내로 안건 채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임시정부의 입장에 따라⁶⁴⁾ 서로군정서·한족회와 임시정부의 관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임시정부의 입장은 안건 제출 이전인 3월 17일에 진행된 대정방침질문에서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은 독립전쟁에 대한 임시정부의 입장을 확인하였는데, 군무차장 김희선(金義善)이 “개전을 희망하지만 정부의 의사를 발표하지 못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⁶⁵⁾ 그가 그렇게 답변한 까닭은 재정문제에 있었다. 임시정부 재정의 주요 재원(財源)이 인구세만 있었던 탓에⁶⁶⁾ 임시정부는 독립공채를 또 다른 재원으로 삼아 재정을 확보하고 일원화하고자 했다.⁶⁷⁾ 결국 임시정부도 재

62) 김동삼을 포함한 서로군정서의 공통된 입장으로 볼 수 있다(김정미, 2001, 「석주 이상룡의 독립운동과 사상」, 149쪽).

6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 I』, 78-80쪽.

6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 I』, 81쪽.

6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 I』, 76쪽; 김광재, 2009,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혁명가 윤기섭』, 70-72쪽.

66) 1920년 3월 17일 대정방침질문이 있었는데, 특히 재정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 그리고 7일 뒤에 답변이 있었다. 재무차장 윤현진이 현재 재원이 인구세 밖에 없어서 앞으로 인지세를 제정하고 남은 부분은 공채로 보충하고자 한다고 했다(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임시의정원기사(24일)」,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 I』, 76쪽).

6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8, 「임시공채관리국관계」,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7:」

정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서간도 세력의 요구를 쉽게 응하기 어려웠다.

이뿐만 아니라 안건 상정 후 휴회 시간에 김희선이 언급한 내용도 상황을 방증한다. 김희선이 “同案의 說明中에 財源에 關한 말이 一語도 업고 또 議員中에서도 財源에 關하여 質問하는 이가 一人도 업슴을 遺憾”이라고 언급한 것이다.⁶⁸⁾ 또한 “정부가 무슨 신통한 법술로 어디서 신병(神兵)을 불러올 것도 아니요, 또 나뭇잎, 풀잎으로 금전을 만들어낼 것도 아니니”라는 기사 내용도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띠었던 이유를 말해준다.⁶⁹⁾

안건 가결 후 윤기섭과 이진산은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 안창호를 방문하였다. 4월 17일 『도산일기』에는 윤기섭과 이진산, 왕삼덕이 안창호를 찾아가 서간도에 대한 의견을 전한 것이 확인된다.⁷⁰⁾ 그들은 안창호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였다. 정부 인원을 서간도로 파견하는 것과 평안남북도 공채권 발매 권한을 서간도로 전임하는 것, 그리고 군사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었다. 서간도 세력이 국민대회에서 결의했던 핵심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사항은 공채권 발매 권한을 제외하고 수용되었다. 공채권 발매 권한은 쉽게 양도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왜냐하면 평안남북도 공채권은 임시정부의 주요 자금줄이었고, 평안도는 안창호의 정치적 기반 지역이었다.⁷¹⁾ 서로군정서와 한족회에도 평안도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지리적으로 서간도와 인접하고 있어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 세력에게 평안도 지역이 가지는 의미는 작지 않았다.

특히 윤기섭은 군사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4월 29일 윤기섭은 군무부 임시편집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⁷²⁾ 임시편집위원부는 군사교육에 필요한

내무부·교통부·재무부·문화부, 78쪽; 윤대원, 1999, 「대한민국임시정부 전반기(1919-1932)의 재정제도와 운영」,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 기념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251쪽.

6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 I』, 81쪽.

6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1: 독립신문』, 「獨立戰爭의 時機(이에 必要한 準備)」 1920년 4월 1일.

70) 도산안창호선생집편찬위원회, 2000, 『도산안창호전집4: 일기』 1920년 4월 17일.

71) 김광재, 2009,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혁명가 윤기섭』, 76쪽.

7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2: 조선민족운동연감』,

교과용 도서를 편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서였다.⁷³⁾ 윤기섭이 해당 부서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배경에는 그가 고산자 신흥학교 교두였다는 점이 반영된 것 같다. 임시편직위원장 활동은 그가 상정한 안전에서 사관과 준사관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의 일환이었다.

윤기섭의 이러한 활동들은 군정부·서로군정서에서 활동한 이상룡의 생각과 유사한 지점이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과업이었다. “전문적 교육은 십년을 기한”으로 한다는⁷⁴⁾ 이상룡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건의안에서 금년 내에 적어도 1,000명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상룡의 자신감과 해당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던 의원들의 열망이 합치되면서 가속화된 결과였다.

IV. 간도침략 전후 서로군정서의 대응과 이상룡의 인식

1. 간도침략 이전 서로군정서·북로군정서의 연대와 임시정부 인식

상해로 파견된 서간도 인사들은 ‘즉각적인 개전’과 ‘군사기관의 만주 이전’을 주장하였다.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데에는 만주 지역 독립군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⁷⁵⁾ 특히 서간도 지역에서는 5월 무렵에 왕성한 군사 활동이 전개되었다. 조선총독부경무국 통계에 따르면, 1920년 재만독립군의 국내진공작전은 모두 1,651건이었다. 이 가운데 서간도 지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평안북도 지역에서만 908건의 국내진공작전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

72쪽.

7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9: 군무부』, 42쪽.

74)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次金貞西贈李溟坡韻」, 『석주유고』상, 154쪽.

7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1: 독립신문』, 「獨立戰爭의時機(이에 必要한 準備)」 1920년 4월 1일; 김광재, 2009,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혁명가 윤기섭』, 73-75쪽.

다.⁷⁶⁾

이러한 군사 활동으로 일본군은 서간도 지역에만 중·일 합동수색대를 조직하였다.⁷⁷⁾ 중·일 합동수색대는 2개의 수색대로 편성되어 1개 수색대는 5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다른 1개 수색대는 5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각각 서간도 일대를 수색하며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독립군을 탄압하였다.⁷⁸⁾ 이에 이상룡은 일본군에 협조한 중국에 대해 한탄을 시로 남겼다.

길을 빌려준 것도 심히 어리석거늘 병력까지 빌려주다니

중국인들이 도대체 언제나 달콤한 꿈에서 깨어날 것인지 분명히 알지어다, 우리 한인 교포들의 피가 흘러 넘쳐서 장차 다른 날에 마구 북경으로 흘러 흘러 들어갈 것임을

- 「聞敵魁交涉北京 得許十三縣自由行軍 中國自出三萬兵 協攻我軍」, 『石洲遺稿』⁷⁹⁾

그런데 서간도 지역 독립군은 일본군 대응 과정에서 군사적 역량의 차이를 체감하였다. 일본군의 탄압으로 서로군정서와 한족회는 임시정부의 공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공조는 전술한 것처럼 불안정한 재정을 해결하여 군사 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⁸⁰⁾ 이와 관련하여 김희선이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희선은 새로운 무관학교를 설립하기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흥무관학교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76) 국사편찬위원회, 1988, 『한민족독립운동사』 4, 64쪽; 김광재, 2009,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혁명가 윤기섭』, 74쪽.

77) 홍민석, 2024, 「1920년대 초 중국당국의 西間島 지역 단체해산 명령과 韓族會의 대응」, 『송실사학』 52, 송실사학회, 320쪽.

78) 김호진, 2024, 「1920년 일제의 탄압 이후 서간도지역 독립운동단체의 연대와 근거지 재건」, 『역사와실학』 85, 역사실학회, 122쪽.

79)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聞敵魁交涉北京 得許十三縣自由行軍 中國自出三萬兵 協攻我軍」, 『석주유고』 상, 175쪽.

80) “서간도의 인심은 환산되어 당국자가 우려중에 있고, 경제상 곤란으로 진행이 망연하다”라는 내용을 통해 서간도 경제 사정도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0, 『도산 안창호전집4: 일기』 1920년 4월 17일).

지금 본부(임시정부)의 계획으로 서간도 지방에 무관학교를 설치하고 속성으로 초급장교를 양성코자 하는 바 무관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귀 관할 신흥학교를 계속 진행함이 적의(適宜)한 줄로 인정되는 바 이에 관한 경장시설(更張施設)의 내용서는 국무원으로부터 귀 군정서에 보내졌거니와 교육이 시급함에 따라 귀 지방에 관계되는 윤기섭, 이진산, 왕삼덕 제씨와 더불어 협의하고 무관학교 경비는 본년도 예산액 중에서 우선 1만원이 확정되어 이 금액을 재무부에서 장차 지불하겠으니 교육을 한층 확장하시되 본 예산액은 무관학교의 직원 10인, 학생 200인으로 정원하며 연도는 3월 1일로 기산하시오며 무관학교 조례(임시육군무관학교조례)는 추후 송부하겠으니 이에 일준(一遵)하시기 바랍니다.

-「군무부 제57호 공함(公函) 무관학교 설치와 경비 회정에 관한 건」⁸¹⁾

위 안건은 「서간도 타협안」이 1919년 11월 17일에 통과된 이후 첫 지원이었다. 임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한 예산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⁸²⁾ 한족회가 국민대회에서 결의하였던 임시정부의 재정원조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서간도에서 상해로 파견된 윤기섭과 이진산의 끊임 없는 활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5월 7일인데 서로군정서로 발신한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5월 23일 윤기섭과 이진산이 상해에서 서간도로 떠나면서 해당 문서를 서로군정서로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⁸³⁾ 그러나 문건에서 “국무원으로부터 귀 군정서에 보내졌거니”라는 내용으로 볼 때, 해당 안건이 별도로 보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81)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18』 1920년 6월 22일, 「西間島地方 不逞鮮人 狀況에 관한 건」; 김광재, 2009,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혁명가 윤기섭』, 79쪽.

82) 그러나 임시정부로부터 받은 군자금 1만원은 상당 부분 한족회의 행정비로 소모되어 무기 구입과 같은 군사활동에 사용되지 못했다(황민호, 2021, 『철기 이범석 평전』, 선인, 39쪽).

83) 윤기섭이 서간도로 떠난 시점에 대해서 제8회 임시의정원회의가 끝난 뒤로 보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해당 회의는 1921년 2~5월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김광재, 2009,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혁명가 윤기섭』, 78쪽); 그리고 『도산일기』에서 안창호가 서북간도로 파견하는 인사들을 대동여사에 초대해 오찬을 가진 기록이 확인된다. 따라서 윤기섭과 이진산이 상해를 떠난 시점은 5월 23일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0, 『도산안창호전집4: 일기』 1920년 5월 23일).

그렇게 판단되는 이유는 임시정부의 상황에 있다. 서간도 세력과 원활한 관계를 위해 임시정부에서는 인원을 일찍 파견해야 했고, 임시정부는 5월 6일 계봉우(桂奉瑀)를 서간도로 파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5월 10일 계봉우가 서간도 특파원을 사면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⁸⁴⁾ 특파원 파견이 지연되자 서간도 지역에서 상해로 파견된 인사들의 불만이 표출되었다.⁸⁵⁾ 그래서 계봉우의 대체자로 조상섭(趙尙燮)이 결정되고 나서 5월 17일에 조상섭이 서간도로 파견되었다.⁸⁶⁾

그런데 조상섭은 서간도 인사들과 원만한 협조를 이끌지 못한 것 같다. 조상섭이 서간도로 파견된 목적이 임시거류민단체 시설(施設)이었기 때문에, 군사 활동에 관한 논의를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조상섭이 재차 서간도로 떠나기 전인 5월 22일에 안창호를 만나서 나는 내용을 보면 명확해진다.

안창호는 조상섭에게 “해지(該地) 형편이 한족회 명칭 아래로 서간도 전부가 수렴(收攬)될 것 같으면 해회(該會)로 정부에 예측한 민사기관을 만들 것이요, 만약 다른 단체들이 불응하면 거류민단체로 서간도 전부를 총괄하게 하라”고 하였다.⁸⁷⁾ 이러한 조치는 「서간도 타협안」으로 한족회가 이미 임시정부 산하로 귀속된 자치기관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한시적’으로 서간도 세력을 관할하여 자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같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임시정부는 임시거류민단체 설치의 단서를 둬으로써 온전하게 허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5월 23일 윤기섭과 이진산, 조상섭이 서간도로 이동했다. 이때 함께 간 이진산은 서간도 지역에 남아 다시 한족회에서 활동하였고, 윤기섭은 상해로 돌아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⁸⁸⁾ 그런데 이들이 서간도로 이동할 시점에는 이미 중·일

84)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0, 『도산안창호전집4: 일기』 1920년 5월 10일.

85) 왕삼덕이 안창호를 찾아와 서간도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오히려 인원 파견이 늦어져 서간도에서 온 대표자들의 불평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리고 언제 인원을 보낼 것인지도 몰랐다(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0, 『도산안창호전집4: 일기』 1920년 5월 16일).

8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2: 조선민족운동연감』, 73쪽.

87)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0, 『도산안창호전집4: 일기』 1920년 5월 22일.

88) 이상룡이 호란으로 이동하는 이진산을 송별하며 쓴 시를 통해 서간도 지역에 남았음을 알 수 있다(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送李震山向呼蘭」, 『석주유고』 상, 182-183쪽). 그리고 윤기섭이 안창호를 내방했다는 기록으로 그가 다시 상해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산안창호선생전집

합동수색대가 활동 중이었다. 서로군정서와 한족회는 일본군의 집요한 탄압에 대응하며 군사적 역량의 축적과 동시에 그 차이를 체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군의 수색으로 유하현에 있던 한족회 본부가 파괴되었다.⁸⁹⁾ 이상룡이 임시정부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한족회 피해 상황이 파악된다. 보고 자료에는 1920년 4월부터 1921년 2월까지 일본 군경에게 사살된 인원 34명이 정리되었다.⁹⁰⁾ 보고서의 정리 범위는 중·일 합동수색대 활동부터 경신참변(庚申慘變)까지 포함되었고, 살해당한 인원의 대다수가 한족회에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서로군정서는 본부와 부대인 교성대(敎成隊)를 이동시키고 북로군정서와 연대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서로군정서 본부가 유하현에서 액목·안도현(額穆·安圖縣)으로 옮겨져 조직 붕괴를 방지하였다.⁹¹⁾ 이때 이상룡은 화전현으로 피신해 서로군정서 본부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락하고 있었다.⁹²⁾ 그는 성준용(成駿用)과 강남호(姜南鎬)를 안도현으로 먼저 보내 주둔지를 물색하게 하였고, 그 후에 교성대를 삼림지대 삼인반(三人班)으로 이동시켜 나누어 주둔하였다.⁹³⁾

그리고 서로군정서 본부와 부대의 이동 위치는 북로군정서 활동 지역과 인접하였다. 이상룡은 김좌진과 연락하여 5월 29일 양 군정서 간 조약을 체결하였다.⁹⁴⁾ 두 군정서 간 연대 관계는 이상룡이 독판(督辦)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가져온 생각이었다. 그가 김좌진에게 보낸 편지에 “귀서와 본서는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기관으로 차별해서 달리 보는 일이 있어서는

편찬위원회, 2000, 『도산안창호전집4: 일기』 1920년 5월 28일.

89) 김호진, 2024, 「1920년 일제의 탄압 이후 서간도지역 독립운동단체의 연대와 근거지 재건」, 『역사와실학』, 122-123쪽.

9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2:조선민족운동연감』, 124-125쪽; 해당 자료의 藝西軍政署 督判 李啓源은 이상룡으로 李啓元의 오기이다.

91)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18』 1920년 6월 4일, 「不逞鮮人取締狀況報告ノ件」; 채근식, 1985, 『무장독립운동비사』, 123쪽.

92)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行狀」, 『석주유고』 하, 160쪽.

93) 박민영, 2020, 『임시정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지식산업사, 154쪽.

94) 김정명 편, 1999, 「大正九年八月九日 高警第二三、七九三號(國外報報)」, 『조선독립운동II』, 959-961쪽.

안 되겠기에 … 진실한 마음으로 연대하시고 경계를 두지 말고 일치하여 함께”라는 내용에서도 협치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⁹⁵⁾

2. 간도침략 이후 임시정부의 미의원 방한 준비와 임시정부 인식

6월 7일 봉오동(鳳梧洞)에서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과 일본군의 전투가 발발하였다. 봉오동에서 대패한 일본군은 8월에 ‘간도지역 불령선인 초도계획’으로 독립군을 섬멸하고자 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일본군은 ‘훈춘사건’을 명분 삼아 서북간도 지역으로 출병하였다. 이러한 일본군의 행위는 걸림돌인 독립군의 활동 기반을 뿌리째 뽑으려는 의도도 분명하였지만,⁹⁶⁾ 궁극적으로는 만주를 점령하고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⁹⁷⁾

이상룡은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간도를 침략하기 이전부터 활동한 중·일 합동 수색대로 인한 군사적 역량의 차이를 겪었고, 그로 말미암은 김좌진과의 연대는 일본군에 대한 대응 준비였다. 7월 29일 이상룡이 김좌진에게 답장을 전달하고, 8월 25일 김동삼(金東三)이 북로군정서에서 6일간 체류하였다가 서간도로 돌아가는 등 두 군정서의 교류가 이를 말해준다.⁹⁸⁾

10월 초 청산리(靑山里)에서 독립군들은 일본군과 대대적인 전투를 치렀다. 청산리 일대에서 독립군이 아홉 차례 전투 끝에 일본군을 대패시키자, 일본군은 만주 장악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독립군과 한인사회에 대한 탄압을 가하였다. 서로군정서는 일본군을 직접 맞닥뜨려야만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군정서는 임시정부의 직접적인 협조 즉,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임시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임

95)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答金佐鎭 庚申」, 『석주유고』 상, 444쪽.

96) 김희곤, 2012, 『안동 내애타을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 지식산업사, 118쪽.

97) 한성민, 2023, 「일본의 ‘간도(間島) 출병’ 배경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80, 한일관계사학회, 339쪽; 조원기, 2012, 「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침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24쪽.

9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陣中日記」, 『독립운동사자료집』 10, 1976, 50·56-57쪽; 김정미, 2001, 「석주 이상룡의 독립운동과 사상」, 159쪽.

시정부는 6월부터 미의원시찰단주비위원회를 조직하여 8월 미의원단의 방한을 대비하는 데 집중하였기 때문이다.⁹⁹⁾ 이 같은 상황에서 이상룡은 양 군정서 간 결속력을 강화하여 공조를 도모할 수밖에 없었고, 임시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태도로 비추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청산리 전투 이후의 소식을 듣고 이상룡이 남긴 시에서 그의 생각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룡이 쓴 시에서 언급된 ‘사령관’이 주목된다.¹⁰⁰⁾

청산리대첩 소식은 내 귀를 처음으로 깨워주었으니
한번의 싸움에서 수백의 적병을 섬멸하였다 하네
 좋지 못한 지휘는 사령관(임시정부)이 져야 할 책임인데
끝내 **건강한 병사들을 모두 별처럼 흩어지게 하였네**

- 「聞靑山捷一後 我軍散亡殆盡」, 『石洲遺稿』¹⁰¹⁾

여기서 사령관은 임시정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령관을 이상룡 자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서로군정서 책임자인 독판이었고, 임시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로군정서가 임시정부 산하로 편입된 상태였지만, 임시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 임시정부는 즉각적인 개전 요구를 회피하고 서간도 세력에 대한 자치 통할도 온전하게 맡기지 않았다.

게다가 임시정부는 두 차례 전투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나 원조가 없었다. 1921년 이승만이 보낸 교서에서 “一般人民이 各其 所在地에서 職業에 從事한 餘暇에 兵事를 練習하며 武器도 可及의 各自 求得하였다가 時機를 乘하여 正式 宣戰”하

9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8: 정부수반』, 「상해임시정부에 보낸 글」, 68쪽; 김용달, 199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특파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386쪽.

100) 사령관을 지칭하는 대상을 이상룡 자신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서로군정서 독판이었고, 임시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임시정부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기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01)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聞靑山捷一後 我軍散亡殆盡」, 『석주유고』 상, 171쪽.

니 “個人이나 團體가 敵國人에 대해 非人道的 行動(무장활동)이 없기를 注意”하라는 내용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¹⁰²⁾

임시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한 이상룡의 인식은 그가 손영직(孫永稷)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 저는 오늘 실패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내적 역량이 충분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내적 역량에도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으니, 하나는 **인재의 교육과 훈련**이요, 둘은 **금전의 저축**입니다. …(중략)… 옛날 월나라가 오나라에 패한지 20년을 지나서 구천이 회계에서의 수치를 설욕하였고, 고구려가 당나라에 멸망한지 19년이 지나서 대조영이 발해의 기업을 세웠습니다. … **우리나라가 강제로 병합된지 겨우 만 10년이 되었는데 선언서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은 굳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도 알 수 있었던 일이지만 실패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토록 분발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로운 함성 앞에 이기적 개인이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었으니** …(중략)… **첫판(중·일 합동수색대 대응 및 두 차례 전투)은 이미 실패하였으니 두 번째 계획은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철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로지 실력을 저축하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북경에 간 것은 순전히 이런 것을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

-『答孫永稷』, 『石洲遺稿』¹⁰³⁾

위 편지는 “지난번에 제가 북경에 간 것”이라는 말로 1921년이나 그 이후에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룡이 언급한 첫판은 중·일 합동수색대와 두 차례 치른 전투로 보인다. 이상룡이 지난 8, 9년 동안 군사 인재를 양성하고 군사 활동을 준비해 왔던 자신감이 있었으나, 실제 일본군을 맞아 대응하면서 군사적 역량의 차이를 체감하였다. 그 결과 한족회 본부가 파괴되고, 서로군정서의 본부와 부대를 이동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이상룡은 첫 번째 판을 실패로 평가하고 두 번째

10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 I』, 88쪽.

103)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答孫永稷』, 『석주유고』 상, 445쪽.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서로군정서가 일본군에 의해 잃어버린 기반과 독립군을 재정비하는 일이었다.

이상룡은 임시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불만스러웠지만, 임시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강조하던 통합의 기조와 맞지 않았고 자칫하면 분열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21년 북경군사 통일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장에 모인 인사들이 서로 비방하고 공격하는 행동을 보고서 “다만 한스러웠던 것은 우리 한인들의 수준이 너무 유치하다”는 이상룡의 말에서 드러난다.¹⁰⁴⁾

서로군정서는 1919년에 임시정부와 타협하여 상대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이상룡이 분담을 바탕에 둔 협치라는 인식의 결과물이었다. 이상룡은 서로군정서는 군사기관으로서 지속적인 군사 활동을 준비하고, 임시정부는 상위기관으로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계획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1920년 5월부터 시작된 일본군의 탄압과 연이은 두 차례의 전투는 양자의 대응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대응 방식은 이상룡을 비롯한 서로군정서가 임시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결과가 되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서로군정서 독판 이상룡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상룡의 인식은 세 시기에서 볼 수 있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전후, 그리고 1920년 혈전 선포와 일제의 간도침략 전후이다. 시기마다 임시정부에 대한 이상룡의 인식은 우려-긍정-중립으로 변화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소식에 대해서 이상룡은 우려하였다. 그는 정부 수립 시기가 빠르다고 판단하였고, 실력 축적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던

104)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答孫永稷」, 『석주유고』 상, 447쪽.

탓이다. 하지만 이미 수립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거나 정부 명칭을 고집하여 혼선을 유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이상룡은 '독립전쟁'이라는 대전제에서 '통합'을 우선 가치로 두었다. 통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생각은 분치를 기반으로 한 '협치'였다. 그래서 이상룡은 타자에 대한 상대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실력 축적에 집중하고 나서 통합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여긴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11월 17일 군정부가 임시정부 산하로 편입되는 통합의 결과를 만들었다. 이때 통과된 「서간도 타협안」은 '상대성'을 보장한 것이었고, 이를 계기로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단체들도 임시정부 휘하로 편재되었다. 이는 '독립전쟁'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두고 각자 지속적인 군사적 역량을 쌓아 세력의 통합을 도모하려는 이상룡의 인식과 같았다.

그리고 1920년 임시정부 정부 방향의 최우선은 군사 활동이 되었다. '독립전쟁의 해' 선포는 서로군정서를 비롯한 재만독립군에게 고무적이었다. 이 가운데 서로군정서는 대표를 상해로 파견하여 임시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고자 하였다. 이는 무관학교 급증과 다수의 군사 인재 양성 등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이상룡과 서로군정서의 자신감이었고 임시의정원에는 기대감으로 작용하였다. 이상룡의 자신감과 임시의정원 인사들의 기대감은 즉각적인 개전의 주장으로 이어졌고 서로군정서는 활발한 군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5월부터 일본군은 탄압을 시작하였고 그 탄압은 두 차례의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상룡과 서로군정서는 일본군에 대응하면서 군사 역량을 쌓음과 동시에 실력 차이 체감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족회 본부가 파괴되고 34명에 이르는 한족회원이 희생되었다. 또한 이상룡과 서로군정서는 본부와 부대를 이동시켜 재기를 계획하였다. 일본군의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상룡은 양 군정서 간 결속을 통하여 일본군의 공세에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임시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8월에 있을 미의원단 방한을 대비하는 것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이상룡을 비롯한 서로군정서 인사들에게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룡은 가장 우선의 가치를 통합으로 두었던 만큼, 임시정부에 대한 반대는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즉각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진 않았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대응 방식은 이상룡을 비롯한 서로군정서가 임시정부 신하기관으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상룡이 생각한 상대성을 중심으로 한 협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919년 4월 11일부터 1920년 12월까지 이상룡이 가진 생각의 핵심은 분치였다. 이는 이상룡이 임시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의 기준점이었다. 그리고 상황에 따른 양자의 대응 방식 차이는 이상룡의 기준점에 영향을 주어 임시정부 인식에 대해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도 명확하다. 임시정부에 대한 이상룡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상룡과 함께 서로군정서에 있던 인물들의 인식이 확인되지 않아 대표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할 자료가 빈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추후 보완하여 1921년 이상룡의 향방을 살펴보는 연구과제로 이어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金正明 編, 1999, 『朝鮮獨立運動Ⅱ: 民族主義運動篇』, 原書房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 I』,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0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8: 정부수반』,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0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9: 군무부』,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0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7: 내무부·교통부·재무부·문화부』,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1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42: 서한집 I』,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1: 독립신문』,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0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2: 조선민족운동연감』, 국사편찬위원회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0, 『高山安昌浩全集4: 일기』,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 10

송상도, 1971, 『騎驢隨筆』, 국사편찬위원회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국역) 石洲遺稿』 상·하, 경인문화사

정원택(홍순옥 편), 2018, 『志山外遊日誌』, 탐구당

채근식, 1985, 『武裝獨立運動秘史』, 대한민국공보처

2. 논문 및 저서

국사편찬위원회, 1988, 『한민족독립운동사』 4, 시사문화사

김광재, 2009,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혁명가 윤기섭』, 역사공간

김희곤, 2008, 『대한민국임시정부 I: 상해시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_____, 2012, 『안동 내앞마을 항일독립운동의 성지』, 지식산업사
- 박민영, 2020,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지식산업사
- 윤대원, 2006,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 장세운, 2021,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사』, 선인
- 황민호·홍선표, 2008,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황민호, 2021, 『철기 이범석 평전』, 선인
- 강운정, 2018, 「신흥무관학교와 안동인」, 『한국학논총』 4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김병기, 2019,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만주 무장독립운동」, 『국학연구』 23, 국학연구소
- 김승학, 1998, 「망명객행적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용달, 199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특파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 김정미, 2001, 「석주 이상룡의 독립운동과 사상」,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호진, 2022, 「한족회와 대한독립단의 성립과 연대 양상」, 『한국근현대사연구』 102, 한국근현대사학회
- _____, 2023, 「3.1운동 이후 서간도지역 독립운동단체의 동향과 대한통의부의 결성」,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 _____, 2024, 「1920년 일제의 탄압 이후 서간도지역 독립운동단체의 연대와 근거지 재건」, 『역사와실학』 85, 역사실학회
- 박성순, 2020, 「대한독립단의 위상과 대한광복군사령부의 성립」, 『송실사학』 45, 송실사학회
- 신주백, 2021, 「1920년의 임시정부 독립전쟁론과 북간도 지역 독립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윤대원, 1999, 「대한민국임시정부 전반기(1919-1932)의 재정제도와 운영」,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 이성우, 2022, 「고광 이세영의 생애와 독립운동」, 『역사와담론』 103, 호서사학회
- 이재호, 2011, 「윤기섭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참여와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혜린, 2015,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불신임운동의 주체와 성격」, 『인문과학』 57,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조원기, 2012, 「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참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한성민, 2023, 「일본의 '간도(間島) 출병' 배경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80, 한일관계사학회
- 한시준, 2013, 「신흥무관학교와 윤기섭」, 『한국근현대사연구』 67, 한국근현대사학회

홍민석, 2024, 「1920년대 초 중국당국 西間島 지역 단체해산 명령과 韓族會의 대응」, 『승
실사학』 52, 승실사학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modern/>)

- 일본의무성,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9·18

- 일본육군성,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5』

투고일: 2025년 9월 21일 심사완료일: 202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2025년 10월 27일

■ Abstract ■

Perception and Cooperation of Lee Sang-ryong,
Administrator of the Seorogunjeongseo, towar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1919-1920)

Jeong, Hyun Tak (Gyeongbuk National University)

It is well known that on November 17, 1919, the Military Government (hereafter, the 'Gunjeongbu軍政府') was renamed the Western Military Administration Office (hereafter, the 'Seorogunjeongseo西路軍政署') and placed under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ereaft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is change is confirmed in the 「Seogando Compromise Agreement('Seogando-tahyeopahn西間島妥協案)」 concluded through negotiation with the Provisional Government. However, studies examin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unjeongbu or its reorganized successor, the Seorogunjeongseo, are rare. Most existing research has focused primarily 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itself.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Seorogunjeongseo (formerly the Gunjeongbu), on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organizations in the Seogando region, perceiv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the perceptions of Lee Sang-ryong(李相龍), who served as the Chief Executive(總裁) of the Gunjeongbu and later as Administrator(督辦) of the Seorogunjeongseo. Considering Lee's significant status in the Manchurian independence movement, it can be assumed that his percep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d considerable influence.

To examine Lee Sang-ryong's percep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 research period is set from 1919 to 1920. By dividing this period into three phases,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nging pattern of his views toward the Provisional Government. Lee's perception evolved from concern to approval, and finally to neutrality. From April 11, 1919, to December 1920, the core element underlying

Lee's perspective was the concept of 'separate governance'(分治). This notion served as the fundamental criterion for his view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 Provisional Government's responses to unfolding situations affected this criterion, leading to changes in Lee's perception over time.

Key words: Gunjeongbu(Military Government軍政府), Seorogunjeongseo(Western Military Administration Office西路軍政署), Lee Sang-ryong(李相龍),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Recognition, Cooperation